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4호【주제 제25387호】주제 105(2016)년 8월 31일(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최룡해 동지, 김수길 동지, 김능오 동지, 박태성 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또한 김용주 제일본조선청년동맹 대표단 단장, 김영녀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대표단 단장이 참가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승고한 청년증서, 청년사랑의 정치로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병장들로 키워주시고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시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과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의 정으로 새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리저울라 래양성지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청년전위들의 대회합을 마련해주시었으며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기반도

수어해주시고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달래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남녀청년들이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선화의 창조자, 고상한 사회주의미풍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이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는데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버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걸사옹위!>의 구호의 함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격정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 높이 청년동맹을 영원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조선

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의 선봉에서 우리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람다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본자, 사상파 신념의 제일강자가 되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필승의 기상과 전무적위용을 힘있게 펼쳐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 공화국 내각 수상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중앙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일 85돐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프로 루쓰

2016년 8월 23일 아바나

주체적청년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전하는 사상교양의 거점 청년운동사적관 개관후 1460여개 단체의 11만 9000여명 참관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청년강국건설의 자랑스런 역사를 펼쳐신 백두산결사대원들의 불멸의 청년운동명도업적을 만대대 김이 전하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찾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외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투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것이 없고 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로동당시대를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역사의 신명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8월에만 도 2만 5000명이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한것을 비롯하여 개관후 이곳을 찾은 참관자수는 1460여개 단체의 11만 9000여명이 달한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민대에 빛내여 가며는 인민군인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참관자들은 백두산결사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에 주체적청년운동에 새겨진 자랑찬 승리의 역사를 깊이 체득하였다.

홍서훈에 들어선 참관자들은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림상을 우러러 참가인사를 드리었다.

결사대원들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그들은 혁명명도의 전기간

청년사업을 중시하시고 청년들을 위 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었다.

참관자들은 청년사업을 지도하여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과 주체적청년운동의 앞길을 밝힌 결사대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적들을 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백두산결사대원들의 혁명명도의 특양성과 현명성을 뜨겁게 진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세 세대 밀려 청년들로 리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는 영상이술작품과 배양후 인형을 창립해주시고 청년들을 새 민주조선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사적자료들에서 그들은 조선청년운동의 개혁자이시고 탁월한 명도자이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들에게 넘겨주신 혁명의 재물들을 비롯하여 사적물들에서 그들은 장군님께서 청년동맹을 김일성 동지의 청년조직으로 꾸려주시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주체의 청년운동으로 발전시켜주시신 거대한 공적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서서 청년들이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유길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심장마대에 간직하였다.

이곳을 찾은 청소년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청년운동 사상과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총정다해 받들어나갈 불타는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